

17세기 남성헤어스타일 변화에 따른 남성이미지 연구 - 머리와 수염스타일을 중심으로 -

김경희⁺ · 문윤경^{*} · 김서영^{**}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조교수⁺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A Study on the Men's Image Following the Change in Their Hair Style the 17th Century - Focusing on Hair and Beard Style -

Kung-Hee Kim⁺ · Yeun-Kyung Moon^{*} · Seo-Young Kim^{**}

Assistant Prof., Dept. of Clothing & Textile, Sungshin Women's University⁺

Lecturer. Dept. of Clothing & Textile, Sungshin Women's University^{**}

Lecturer. Dept. of Clothing & Textile, Sungshin Women's University^{***}

(2007. 11. 6. 접수; 2007. 12. 20. 채택)

Abstract

In the 17th century, men's hair style showed a dramatical change to thick hair style with femininity. During the 17th century, men wore their hair longer than at any other time in the history of western culture.

Men's hairs in the early 17th century were defined as short hair style influenced by ruff collar of renaissance and thick beards and moustaches

During the mid 17th century, shoulder-length hair style was predominant over all classes. As hair style became long, beards and moustaches gradually declined in favour: from 1625, small neat beards, and moustaches turned up at the ends, got progressively smaller, and by 1650 the beard was only small tuft on the chin, disappearing completely by 1680.

In the late 17th century, very long, thick and shiny hair got a great popularity with the gorgeous and decorative baroque costume dominated over the entire Europe. The habit of adding false hair when natural hair was deficient led to the introduction of the periwig, which became an essential part of a fashionable man's attire.

Wiggery were widely used to express curled and puffed hairs more exaggerated. As the long hair style with wiggery became popular, various style of beard and moustache got smaller so that they were ended up in entire disappearance in the end of the 17th century.

Key Words: Long hair(긴머리), Wig(가발), Beard(턱수염), Mustache(콧수염)

Corresponding author ; Kung-Hee Kim

Tel. +82-2-920-7665, Fax. +82-2-760-4484

E-mail : zin1221@hanmail.net

I. 서론

새로운 세기를 맞이한 오늘날의 복식문화에도 인간 본연의 욕구는 시대에 맞게 아름답게 꾸미려는 미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의, 식, 주를 통해 변화 발전되면서 사회적,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

시대적 미의식으로서 헤어스타일은 시대나 환경에 따라 가변적으로 변형될 수 있다. 신체적 특징 중에서 가장 확실하게 변화를 줄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헤어는 그 사람의 신분이나 직업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때와 장소에 따라 변화하는 유동적인 물질로서 이미지와 성격까지 관별할 수 있는 외관상의 특징을 나타내며, 한 시대의 사회문화와 정치, 경제 속에 헤어 패션이라는 문화로서 반영되고 있다.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헤어스타일은 인종, 풍토, 미의식, 민족, 성별을 구분할 수 있는 척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자연적조건과 민족의 시대성 등 제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개체이므로 각 시대마다 변화되는 헤어스타일에 대한 고찰은 복식사적 관점에서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현대와 미래의 스타일을 이끌어 나가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과거 스타일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헤어스타일에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여성들의 복식유행에 따라 여성 헤어스타일의 변화와 이미지에 대한 연구가 많았으며^{1),2)}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은 남성들의 헤어스타일과 수염스타일에 대한 연구는 일부분만 다루어 졌을 뿐 아직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남성의 헤어스타일과 수염스타일을 더 분석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시대적으로 다양한 변화가 있었던 17세기 바로크 시대를 중심으로 남성의 헤어스타일과 수염스타일 변화와 함께 남성적 이미지변화과정을 연구함으로써 심층적인 과거 헤어스타일의 고찰을 통해 새로운 모드를 디자인하는데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초단계로서의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17세기 바로크시대 남성복식과 헤어스타일에 관련된 국내외 문헌, 복식과

미학에 관련된 선행연구, 인터넷상의 외국 박물관 자료를 중심으로 수집, 검토하여 분석하고 사진 및 그림을 통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II. 17세기 유럽의 정세변동과 남성이미지 변화

1. 17세기 유럽의 정세변동

17세기는 르네상스에서 바로크(Baroque)로 이어지는 시기로서 유럽의 정세가 급변하며 절대주의 정치체제의 형성, 기독교 사상의 지배에서 벗어난 계몽사상의 출현, 활동적이며 과장적인 바로크 미술양식의 유행 등 정치, 종교, 사회적으로 다양한 문화가 충돌하며 발전하는 시기였다.

바로크의 어원은 ‘일그러진 진주’라는 스페인어인 ‘barruca’에서 연유한 것으로 열정적이고 감각적인 기품을 바탕으로 한 조화와 균형이 파괴된 데서 오는 부조화, 불균형의 미를 본질적 특징으로 하고 있다³⁾. 이러한 바로크 양식을 본질적 특징으로 한 17세기는 크게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눌 수 있다.

전기는 1630년 까지 스페인 공정세력과 프랑스 세력의 교체기로서 16세기말경 강대국으로 성장한 스페인이 유행의 지도자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17세기 전기 전유럽에서는 스페인풍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스페인에서 독립한 네델란드의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17세기 중기부터는 네델란드가 유럽의 해상활동을 독점하고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면서 영국과 패권을 다투는 등 경제강국으로 유럽세계에 부상하였다⁴⁾. 경제의 발달과 함께 네델란드의 자유로운 정치체제는 시민풍의 새로운 경향이 나타났으며 독창적인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의 출현으로 예술의 꽃을 피워 17세기에 가장 융성하였다⁵⁾. 17세기 중기 영국에서는 시민계급이 스스로를 해방시키려는 투쟁인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 봉건귀족을 타파하고 자유주의 민주주의의 길을 열었다. 크롬웰에 의한 공화정이 실시되자 영국의 경제력은 더욱 강해졌고 네델란드로부터 해상권을 장악하게 되었다⁶⁾.

17세기 후기 루이 14세의 강력한 왕권을 밑바탕으로 중앙집권적인 절대주의 국가를 이룩한 프랑스는 재상 콜베르(J. Colbert)를 중심으로 중상주의 정책에 힘입어 경제기반을 확립하고 패션의 지도적 위치를 구축하면서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 성장하였다. 프랑스는 절대 왕권 하에 새로운 귀족문화의 출현을 계기로 바로크 양식의 예술적 발전을 이루었다. 17세기 중기 네델란드의 단순한 실용성을 추구하던 유럽인들도 후기에는 호화스러움을 목적으로 하는 바로크예술 양식에 현혹되었으며 프랑스 모드는 유럽 각국으로 파급되었다. 전통적이고 조화로운 균형미가 특징인 르네상스 양식을 탈피하여, 격렬한 남성적 이미지와 함께 자유분방한 율동미를 부정형의 예술적인 곡선으로 표현하는 바로크 예술은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미학적인 양식으로서 네델란드의 시민문화와 절대왕권의 화려한 귀족문화가 융합된 부정형의 예술양식을 구체화하여 17세기의 독특한 문화를 이루었다.

2. 17세기 복식에 나타난 남성이미지 변화

인간이 복식을 통하여 자신의 외형을 제시한 이래로 시대나 사회가 갖고 있는 이상미는 복식을 통하여 인체로 드러났다. 각 시대, 각 사회는 자기 자신을 모든 정신적인 표현형식속에 관념화하여 드러낸다. 이는 특히 육체관속에서 관념화되어 드러나며) 이를 표현하는데 복식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남성복식을 통해 구현되는 미의식은 여성복과 대조적으로 인체에 대한 시각적 우선성을 주어 바지를 중심으로 시각적 외형의 구분이 가능한 다리를 남성적 이미지로 강조하고 있다⁸⁾.

15세기 이후 르네상스시대부터 남성상은 중세 이래 절제와 금욕을 중요시 했던 종교로부터 해방되어 독립적이고 행동적이며 우월한 남성의 위치를 찾는 인간상이었다. 16세기 인체 외형의 과장된 이미지를 보여준 더블릿(Doublet)과 러프 칼라(Ruff collar)는 목과 얼굴에 시각적 초점을 맞추어 인간에게 위엄과 권위를 부여하면서 르네상스 시대 강인한 남성미의 개념을 잘 표현하였다.

17세기 전기는 유럽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엄

격하고 절제된 종교적인 관념 하에 남성미를 보여주고 있는 스페인풍의 복식유행과 르네상스 시대의 잔재로 인하여 강인한 남성미를 확대한 복식이 계속 유행하였다. 더블릿과 트렁크 호오즈(Trunk hose)는 복합적인 화려함을 나타내며 초자연적인 힘의 추상적 이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며 이상적 남성상을 재현하는 남성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그림1>. 그러나 프로테스탄티즘을 기반으로 한 네델란드의 세력확장과 청교도의 정숙성이 공적인 일에 시각적 위엄이 있는 존재로 부각되면서 복식의 형태는 점점 르네상스 시대와는 다르게 패드가 축소된 편안한 형태가 되면서 자연스러운 남성미를 강조할 수 있는 실루엣을 연출하게 되었다.

17세기 중기 네델란드는 상,공업 발달로 인한 경제적 부흥과 함께 청교도적인 사고방식과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 권력을 쟁취한 시민층의 사상이 확산되면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새롭게 재정립시켰다. 당시의 남성은 의지와 함께 두뇌를 가지고 있으며 정력적인 눈매, 일단 차지한 지위에서 꼭 버틸 수 있는 다리를 가진 남성이 이상적으로 간주되는 남성의 이미지였다. 이러한 모든 것은 냉정한 남성적 확신에 의해서 지배되고 조절되었다. 이러한 남성의 미의식을 반영하며 기능적이고 단순하고 절제된 시민복이 전 유럽에 유행하게 되었다. 시민복은 기능성, 활동성을 요구하는 남성복에 영향을 주었으며, 시민복이 주는 자연스러운 실루엣과 플랫칼라는 청교도를 중심으로 한 영국, 북유럽, 독일북부, 미국 등 신교국에 영향을 미쳤다. 기교와 장식보다는 실용적, 합리적인 것을 지향하는 도시상인계급의 생활윤리를 배경으로 한 시민복은 남성복의 근대화를 이끄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으며 셔츠(shirts), 조끼(waistcoat), 바지(trouses), 쥘스토포르(justaucorps)의 한세트에서 정치, 경제에서 책임감과 능력이 요구되는 절제된 남성상과 남성 우월적인 사고방식을 표출하는 보수적인 권위미를 보여주고 있다⁹⁾. 절제의 욕구는 17세기 중기 전유럽이 전쟁에 가담했던 모든 지역에서 나타나는 군인다운 우직성과 신속함의 표현으로, 기능미에 입각한 단순한 이미지를 보여줬다. 이는 남성복에도 영향을 미쳐 ‘청교도적인(clerical)’ 의미는 법률의 공정한 집행, 정직



<그림1> 리프와 트렁크호츠를 착용한 남성
A History of Fashion, p.205



<그림2> 청교도인들의 헤어스타일
서양복식문화사, p.223



<그림3> 후기 귀족의 복식형태
패션의 역사, p.371

한 실천, 사상과 학문에 대한 종교적 세속적 헌신을 의미하는데¹⁰⁾ 네델란드의 청교도 정신은 이를 받아들였으며 남성복에 미친 영향은 어두운 색의 단색 슈트로 특징지어졌다<그림2>.

그러나 17세기 전기, 중기를 지배했던 사고체계는 화려함과 일그러진 생동감, 향락주의가 만연했던 17세기 후기 바로크시대를 거치면서 한동안 퇴폐적인 남성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복식에 표현된 바로크 스타일의 특성은 여성적인 취향으로서 복잡적이고 다채로우며 장식 모티브들의 배열로 물결치는듯한 자유로운 곡선과 눈부시게 화려한 장식으로 정열적이며 요염한 분위기를 나타낸다¹¹⁾. 향락적인 시대의 구체적 이상미의 모델은 여성인체였고 남성은 그 자체로서 본분을 다하기 위해 남성미를 강조한 인체의 필요성이 없어졌다¹²⁾. 이러한 분위기는 남성의 여성화한 행동양식이나 여성적 분위기의 복식형태로 이어졌다. 남성복도 이러한 복식모드의 영향을 받아 화려하고 여성적인 스타일의 복식이 유행하게 되었다. 굽이치는 물결모양의 곡선과 동적인 느낌의 문양들이 남성복에 표현되었으며, 꽃, 단추, 레이스, 리본다발들을 의복에 과도하게 사용하였다¹³⁾. 남성적 인체미는 하체를 부풀린 투르쓰(Trousse)나 페티코트 브리치즈(Petticoat breeches)로 대체되었고 상체를 약화시킨 간소화된 더블릿의 길이는 점점 짧아지면서, 레이스와 리본다발로 장식된 슈미즈를 외부로 노출시켜 여성적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그림3>. 17세기 후반 더블릿은 소매달린 짧은 조끼형태로 변하면서 중적을 감추게 되었고 이를 대

신하여 1670년경부터 귀족층에서도 쥐스또꼬르(Justau corps)가 착용되기 시작하였다. 귀족적인 화려한 복식과 실용미와 절제미를 내포하고 있는 시민복식이 융합된 쥐스또 꼬르는 초기에는 울을 사용한 H라인의 실루엣이었으나, 후기 궁정귀족들에 의해 착용되면서 퇴폐적이고 향락적으로 변질되어 색상은 화려해지고 벨벳이나 실크를 사용해 여성의 인체이미지를 모방하여 몸을 가늘게 조이면서 허리에서 밑단으로 놓여지는 실루엣이 되었고 안에 간단한 상의인 베스트를 착용하였다. 이와 함께 착용된 켈로프는 남성 신체의 외곽선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남성의 성적인 면을 상징하며 남성다우며 관능적인 이미지로 정착하였다¹⁴⁾. 이 시기 남성복의 전반적 인상은 환상적인 자유분방함으로 왕정복고시대 궁정의 정신적 분위기에 잘 들어 맞았다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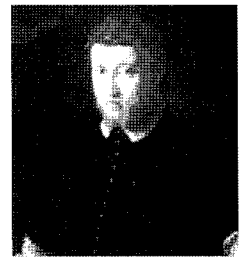
남성의 여성스럽고 화려해진 복식과 함께 헤어스타일도 길고 풍성해지면서 거대한 가발형태로 발전되었고 이는 17세기 독창적인 남성미의 상징으로 그 의미가 변질 되었다¹⁶⁾. 역사상 남성의 여성미가 가장 극대화된 시기였던 17세기는 복식스타일과 헤어스타일이 섬세하고 화려하게 발달하였으며, 이는 남성 우월미의 상징이었던 수염이 얼굴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그림4> 리차드 새크빌,
Francois Boucher(1987)
20,000 Years of Fashion, p.240.



<그림5> 앞머리를 자른 소년
<http://www.abcgallery.com/vandyck>



<그림6> 가리마를 준 남성
<http://www.abcgallery.com>.

III. 헤어스타일(Hair style)과 가발(Wig)

1. 전기

바로크시대 남성의 헤어스타일은 사회, 정치적인 영향, 예술적인 영향, 종교적인 영향, 복식의 형태변화 등 수많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변화되었다.

17세기 전기에는 엄격하고 절제된 남성미를 강조한 스페인 복식모드의 유행과 잔재되어 있는 르네상스시대의 영향으로 높고 둥근 형태의 러프칼라(ruff collar)나 목 뒤쪽이 높고 뾰뚱하게 뻗친 휘스크 칼라(whisk collar)가 한동안 유행하였다. 르네상스 시대부터 남성의 인체미는 힘있는 짧은 머리털, 황소갈이 굵은 목, 볼륨없는 재료로 확대한 각진 어깨와 가슴, 단단한 근육질의 팔, 강인한 두다리에 미적 가치를 두었고, 남성적인 위엄과 강인함을 나타내는 복식모드의 영향으로 1630년경까지 남성들은 짧게 다듬은 자연스러운 머리형이 유행하였다¹⁷⁾.

짧은 머리 형태는 귀가 보이거나 귀를 살짝 덮는 길이에 앞머리는 앞이마로부터 뒤쪽으로 빗질한 형태가 대부분이었으며<그림4>, 정수리에서 앞머리를 앞으로 내려빗어 눈썹위로 짧게 자른 형태<그림5>, 가리마를 주어 앞머리를 뒤로 빗어 넘긴 형태 등 다양한 형태로 유행하였다<그림6>.

1610년 남성들에게 짧은 왕인 루이 13세의 꼬리가 길게 떨어지는 혜성같은 머리모양이 유행하였는데, 그 형태는 긴 머리에 중간 가르마를 타서 나눈 후 목덜미에 머리꼬리가 길게 나풀거리게 하여 머리 양옆에 한가닥씩을 붙이는 것이었다<그림7>. 그 후 머리 길이는 점차 길어졌으며 16세기에 유행하였던 반듯하게 자른 굵고, 짧은 머리형태는 강인하고 엄격한 남성미를 강조하는 전통에서 벗어나 길게 굽실거리는 형태로 궁정의 젊은 남성들에게 유행하기 시작하였다<그림8>¹⁸⁾.

긴 머리와 함께 귀 옆으로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린 형태의 애교머리인 러브로크(Love Lock)도 같이 유행하였으며, 깨끗하게 빗질하여 굽실거리게 하여 땅아 내리거나 꽃이나 레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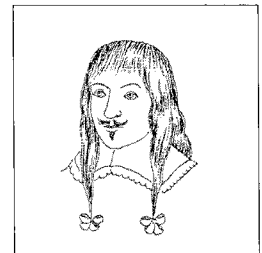
<그림7> 루이13세
미용문화사, p.76



<그림8> 윌리엄 2세
A History of Fashion, p.231.



<그림9> 러브로크를 한 남성
<http://www.abcgallery.com/vandyck>



<그림10> 여러 가닥의 러브로크
Fashion in Hair, p.245.

리본으로 장식하였다. 러브로크의 어원은 아름답게 흘러내리는 긴 머리를 좋아하는 루이 13세가 길이가 긴 머리 끝에 리본 장식을 묶어 사용한 데서 그 이름이 불리워졌다¹⁹⁾. 영국의 찰스 1세를 포함하여 유럽의 신사들은 모두 <그림9>에서 처럼 어깨 아래로 흘러내리는 긴 머리카락을 귀 옆으로 늘어뜨린 후 리본을 매어 장식하였다. 러브로크의 형태로는 한 가닥의 머리를 땀아 다른 부분들보다 좀 더 길게 왼쪽 어깨 아래로 늘어져 내려오게 하여 끝에 리본이나 꽃장식을 한 형태, 귀 옆 양쪽에 늘어뜨린 형태가 있었으며, 유행이 지나치게 과장되면서 6개나 되는 많은 수의 애교머리를 늘어뜨리기도 하였다 <그림10>²⁰⁾.

이러한 형태의 러브 로크는 절제와 위엄을 강조하는 남성미를 추구하였던 기독교인들에게는 비난의 대상이 되었으나 어떠한 사회적 비판도 러브 로크의 유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러브로크는 남성의 인체미가 화려하고 퇴폐주의적인 귀족문화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 여성적 취향으로 확대되었고, 이는 17세기 남성의 헤어스타일이 우아하고 화려하게 발달하게 되는 초석이 되었다.

가발은 17세기 초부터 프랑스에서 유행하기 시작하였지만 큰 호응을 얻지는 못하였다. 17세기 전기에는 르네상스시대의 영향으로 인해 주로 짧은 머리 형태와 어깨까지 오는 길이의 머리 형태가 유행하였으므로, 가발의 필요성이 그다지 크게 대두되지 않았다.

가발의 착용은 루이 13세에 의해서 시작되었는데, 젊은 시절 길고 풍성한 머리를 좋아하던 루이 13세는 머리카락이 병으로 인해 빠지기 시작하자 1624년경부터 가발을 착용하기 시작하였다²¹⁾. 귀족들은 왕을 흉내 내어 머리 형태에 많은 신경을 쓰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가발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러나 가발은 인공적이고 자연을 모독하는 하나의 머리 장식일 뿐 아니라 가발착용에 대해 항상 명예스럽지 못한 것으로 여겨왔으며 노화의 상징으로 치부되어 유럽왕궁과 일부 귀족층에게만 유행되었다.

2. 중기

17세기 중기가 되면서 경제적으로 번성했던 네델란드의 시민정신의 발달, 종교분쟁으로 인한 프로테스탄트 사상은 남성복에 기능성과 활동성을 주었으며, 영국의 청교도 혁명은 중산 시민층의 지지를 얻는데 남성복에 우위권을 차지한 네델란드와 영국풍의 영향은 남성복식에 절제성과 소박미를 심어주었다. 이와 함께 헤어스타일도 자연스러운 남성미를 강조하기 위해 어깨까지 내려오는 길이의 머리형태가 전체적으로 유행하게 되었다²²⁾. 멋을 내는 귀족층에서는 머리를 정돈하는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교를 부리게 되었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머리는 일부러 혼란스럽고 불규칙하게 곱슬거리도록 손질하였고, 머리 윗부분은 짧고 머리 앞쪽으로 내려빚거나, 가리마를 타서 한쪽으로 손질하였으며, 러브 로크 또한 여전히 유행하였다.

곱슬거리는 컬의 형태에 따라 <표1>에서와 같이 다양한 헤어스타일과 용어들이 만들어 졌으며 영국에서는 왕당파 기사들이 머리를 길게 기르기 시작하였는데 곱슬거리는 긴 머리에 향수를 뿌리고 분가루를 뿌리기도 하였고, 필요한 경우에는 가발을 착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긴 머리 형태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었다.

이에 반해 반대파인 청교도인들은 종교적 신념과 절제된 남성미를 나타내기 위해 머리를 반향적으로 짧게 잘랐으며, 머리 형태를 따라 라운드 헤드(round head)로 불리워졌다²³⁾. 머리형태는 특히 정치, 종교와 함께 혼합하여 유행하였는데 유행을 따르지 않은 일반인들과 종교인들에게 길고 곱슬거리면서 향수와 분가루로 치장한 긴 머리는 남성에게 여성미적인 퇴폐미를 강조하는 향락의 이미지로서 비난의 대상이 되었으며 자만심의 상징으로 비판되었다.

그러나 긴 머리를 우아함과 고상함의 상징으로 여기는 대다수 귀족남성들과 젊은 남성들은 머리를 풀어서 곱슬곱슬하게 손질하여 풍성하게 펼친 스타일을 계속 유지하였으며,

리본다발이나 보석으로 장식하였다<그림11>²⁴⁾.

긴 머리의 유행에 따라 가발을 쓰는 것은 처음에는 병이나 노화의 상징으로 젊은이들 사이

<표1> 컬의 형태에 따른 헤어 스타일

종류	형태	그림
컬드 헤어(A Curled Hair)	머리다발을 계속 둥글게 돌려가며 컬을 해준 머리	
크리스피드 헤어(A Crisped Hair)	웨이브를 주어 물결모양은 만든 머리	
프라이즈헤어(A Frise Hair), 프라이드 헤어(A Frissed Hair)	한가닥씩 순서대로 곱슬거리는 형태가 아닌 한다발씩 돌출되어 전체적으로 곱슬곱슬한 상태의 머리	
컬 앤 프라이즈(A Curl and Frise)	컬과 프라이즈 두가지 방법을 혼용한 머리형태	
스네이크 컬(A Snake Curl)	막대기 형태로 컬을 준 머리 다발처럼 동그랗게 여러번 돌려말아 아래로 내려뜨리는 스타일	
드레이크 컬, 드레이크 테일 컬(A Drake Curl or Drake tale Curl)	머리끝만 살짝 위로 들어올린 형으로 나머지 부분은 모두 부드럽게 늘어뜨린다.	
오픈컬(A Open Curl)	머리다발을 둥글게 돌리면서 끝부분을 모두 넓게 만든 머리형태	
하이컬(A High Curl)	중간을 양쪽으로 나누어 컬을 유지하는 머리형태	



<그림11> 길고 풍성한 머리의 귀족남성
서양복식문화사. p.218



<그림12> 가발을 쓴 재상
클베르, 서양복식문화사. p.228

에서는 수치스러운 일로 치부되었다. 그러나 17세기 중기 무렵부터는 긴 머리와 함께 가발의 유행이 우세하게 되자 모든 연령과 계층에서 가발을 쓰게 되었다.

가발은 처음에는 원래 자신의 머리를 풍성하게 보이기 위한 보조 장식으로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머리로 보이게 부분가발을 사용하였으나, 귀족층에서 머리를 짧게 자르고 가발을 쓰기 시작함에 따라 일부러 멋을 낸 가발을 썼다고 판별되는 형태가 사랑받게 되었다<그림12>. 이러한 유행은 1643년 왕위를 계승받은 루이 14세의 재위기간에도 계속되었다. 짙은 갈색 곱슬머리를 아름답게 길었던 루이 14세도 가발을 썼으며 귀족들은 왕에 의해 선보여진 길고 풍성한 머리 형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머리를 면도하고 가발을 착용하였다. 루이14세 치하의 오랜 기간은 가발의 황금시대라 불리워졌다25). 1660년부터 크게 유행한 가발은 한사람이라도 가발을 쓰지 않고 맨머리로 나타나면 무례하게 여길 정도였다. 가발은 궁중과 도시뿐 아니라 프랑스와 유럽 전체에 절대적인 유행으로 퍼져갔다26). 이는 17세기 남성의 이미지가 생명력과 생산력이라는 건장한 이미지를 상실하고 관능성과 소비성의 대상으로 타락함으로써 헤어스타일의 양상도 서서히 인간의 허영심을 과시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변질되어 인위적인 가발로서 퇴폐적인 남성미를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남성 이미지의 변화는 여성들보다는 남성들의 헤어스타일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면서 다양한 종류의 가발과 부피와 형태가 점점 팽창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가발의 재료는 주로 말의 털이나 염소의 털이 사용되었으며, 자신의 진짜 머리 같은 정교한 가발을 만들기 위해 사람의 머리카락들을 사용하여 만들기 시작하였다27). 그러나 네델란드의 귀족과 부르주아계층 그리고 독일과 영국의 일부 귀족들은 자연본래의 머리를 완강하게 고집하였는데 그 이유는 가발을 만들기 위해서 대개 남의 머리카락을 이용하였으며, 특히 죽은 사람의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행실이 부정한 사람들의 잘린 머리카락을 사용하였으므로 특히 청교도적인 절제와 엄숙을 남성미로 강조하는 일부 계층에서 가발은 불명예스러운 상징으로 여겨졌다28). 그러나 남성들에게 패션으로 착용된 어깨까지 내려오는 가발은 점점 필수 불가결한 것이 되었고 이러한 유행은 거의 한세기동안 서유럽의 상류계급 사이에서 지속되었다29).

특히 페리위그(Peri Wig)는 남성 멋내기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연령과 계층에 관계없이 유행하게 되었다30). 페리위그의 어원은 특별히 다듬어지고 바로잡아서 관리하는 진짜 머리카락을 길게 한 두상을 지칭하는 뜻으로 고대에서부터 사용되어져 왔다. 17세기로 오면서 페리위그는 남성들이 진짜머리 대신 착용하는 가짜머리로 지칭 되어 다양한 형태로 착용되었다.

페리위그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구불거리는 꼴을 불규칙하게 손질하여 어깨에 닿게 정리하였고, 크기가 작은 진짜머리에 가까운 형태였다. 프랑스 페리위그 가발은 윗머리를 앞으로 빗어 내리거나 가르마를 타기도 하였다. 후기로 가면서 좀 더 규칙적인 꼴을 가지게는 했으나, 그 크기가 점점 거대해졌으며 거

〈표2〉 페리위그의 부분별 명칭과 그림

명칭	형태	그림
버텀 록(Bottom Locks)	어깨와 등까지 아래쪽으로 늘어지는 뒤쪽 머리다발	
사이드 록(Side Locks)	귀와 목을 덮는 형태로 버텀 록보다 약간 짧은 머리다발	
크라운(Crown)	머리 정수리 부분에 둥근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 에워싸고 있는 머리카락	
포어톱(Foretop)	이마부분은 덮는 머리	
풀 프런트(Full Front)	지지거나 구불거리게 만들어 앞 이마 부위에 올려진 머리	

대한 페리위그는 가운데 가르마 양쪽으로 머리를 높이 올렸으며 어깨 훨씬 아래까지 내려오는 매우 길이가 긴 형태의 가발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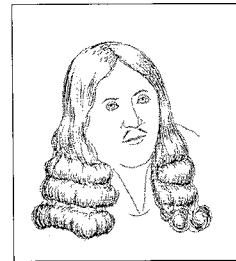
커다란 가발은 비싼 가격으로 인해 중요한 투자로 여겨졌으며, 종종 상속자들에게 다른 귀중품들과 같이 상속되어지곤 하였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여러 벌의 가발을 가지고 있었고 커다란 것은 정장용으로, 작은 것은 가정이나 스포츠용 혹은 비공식적인 경우에 사용하였다. 가발의 크기는 부유함과 가난함을 구분하는 신분상징의 도구가 되었으며 이러한 페리위그의 유행을 쫓지 못하는 일반 서민들은 자신의 머리를 마치 가발을 쓴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긴 머리손질에 공을 들였다³¹⁾. 페리위그는 부분별로 손질하는 형태에 따라 여러 가지 명칭을 사용하였다<표2>.

그러나 이러한 가발의 유행은 17세기 유럽사회의 미의식이 강인하고 독립적인 남성미를 강조했던 인체미에 벗어나 부조화의 화려함과 장식적인 기교속에 여성미를 강조한 부드러운 머리털, 좁은 어깨와 가는 목, 연약한 팔과 손, 확대된 엉덩이를 남성미의 일부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3. 후기

17세기 후기로 들어서면서 바로크 양식이 예술적 발전을 하게 되자 이와 함께 머리 형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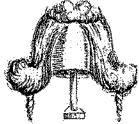
더욱 길고 풍성한 모양으로 나타났는데, 가늘게 뿔은 머리에 리본을 달고 아래로 내려뜨린 형태, 켄된 머리를 빗질하여 간추린 형태 등 머리카락의 풍성함을 자랑하는 여러 형태가 유행하였다. 1650년 이후 머리를 짧게 자르거나 어깨까지 늘어뜨리는 것은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었으며, 길고 손질이 잘 된 윤기 있는 풍성한 머리는 젊음과 아름다움, 높은 신분의 상징이었다. 머리가 술이 없고 빠르게 자라지 않아 볼품없는 것은 노화의 상징으로 치부되었으며 노화는 수치스러운 일로 가짜머리나 부분가발을 부착하여 원래 자신의 머리를 좀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표현하기 시작하였다<그림9>.



〈그림9〉 부분가발을 쓴 남성의 삽화, *Fashion in Hair*, p.249.

1680년 이후 가발은 그 수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였고 매우 다양한 형태의 가발들이 유행하였는데 여러 종류의 가발이 <표3>에서처럼 목록화 되었다.

<표3> 가발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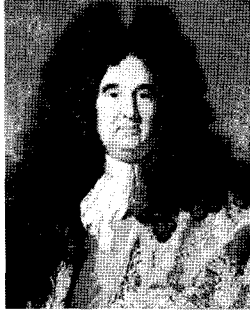
종류	형태	그림
보더 오브 헤어 (A Border of Hair)	목과 귀를 덮는 타래머리로서 머리카락이 없을 때는 모자에 고정시켜 착용하였다.	
숏 보브, 헤드 오브 헤어 (A Short Bob, A Head of Hair)	짧은 타래머리와 정수리에 머리카락이 풍성하게 보이는 형태	
롱 페라위크 (A Long Periwick)	막대기 형태로 정돈한 머리 다발을 뒤와 옆으로 늘어뜨린 형태	
샴페인 위그 (A Champaign Wig)	컬진 앞머리와 함께 매듭을 묶거나, 각각의 옆부분을 막대기 형태로 정돈하여 고수머리처럼 컬한 형태의 여행용 가발	
그라프티드 위그 (A Grafted Wig)	남성들의 숄이 많은 정수리 부분의 인조머리로서 머리 가장 위쪽 부분에 변화를 준 페리 위크	

가발의 부피와 길이가 점점 더 늘어나면서 불가피하게 칼라의 형태도 변하게 되었다. 레이스, 리본다발, 보석으로 장식되었던 목장식 페턴은 넓이가 일정했던 이전 형태에서 가발이 거대해져 어깨와 목을 덮어버리기 시작하자 앞쪽으로 퍼져 다양한 깊이의 장방형 덮개가 달리게 되었으며 등 가운데에 좁은 절개변을 가진 형태로 바뀌었다.

거대한 정도로 무거운 가발은 균형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하였고, 귀족적 취향과 우아함은 바로크 양식의 과도함과 우둔함에 의해 밀려나 호화로움의 정점에 이르게 되었다. 1680년이 되면서 신사들의 패션 중에 두드러진 특징인 풀버텀 위그(Full bottomed Wig)가 크게 유행하였는데 풀버텀 위그는 <그림10>에서처럼 앞 중앙에 가르마를 타고 전체적으로 컬을 하여 끝을 어깨에서 등으로 늘어뜨려 길이가 허리까지 오

는 거대한 형태의 가발이었다. 풀버텀 위그는 거대하고 무거워서 활동하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로 역사상 가장 크고 가장 과장된 스타일이 되었다. 서유럽 상류층에서는 1700년까지 이 가발을 쓰는 것이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는데 <그림11>³²⁾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거대한 가발의 유행은 전체적인 조화보다는 호사스러움만을 목적으로 하는 바로크 예술양식을 나타내는 일례로서 르네상스 이후 남성적인 강인함과 독립적이고 행동적인 우월한 남성미가 변질되고 쇠퇴하면서 우아하고 화려하며 풍요로운 여성미가 극대화된 형태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풀버텀 위그의 유행으로 모자의 유행도 변화하였다. 당시 유럽의 신사들은 정교하게 깃털이나 리본으로 장식된 모자를 착용하는 것이 유행이었으나, 거대한 가발이 크게 유행하자 모자는 이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손에 들고 다니는



<그림10> 풀버팀 위그를 쓴 루이 14세, 천년의 그림여행, p.187



<그림11> 풀버팀 위그를 쓴 백작 Costume and Fashion, p.226.

장식품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³³⁾.

1690년에는 거대한 가발에 분을 뿌리는 유행이 만들어졌는데 그 부정적인 결과로 머리에 서 떨어진 분가루로 인해 레이스 칼라와 크라밋이 변색되기도 하였으며, 어깨에 떨어진 지저분한 분가루가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남성들은 거대한 가발을 보기 좋게 쓰기 위해서 머리를 짧게 잘랐으며, 실내에서 가발을 벗을 때에는 벗은 머리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나이트 캡(night cap)을 쓰기 시작하였다.

남성들은 자신의 머리 같은 자연스러운 가발을 만들기 위해 수입된 머리카락으로 가발을 만들었으며 가발의 유행이 정점에 오르면서 가발의 크기가 커지고 화려해져 가발의 가격이 급상승하자 프랑스에서는 가발에 무역관세를 붙이기 시작하였다³⁴⁾.

17세기말 행정장관이나 목사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왕궁에 입장할 때에는 칼을 보유하지 않는 대가로 가발을 착용하도록 되었다. 이러한 유행에 따라 일부 성직자들도 가발을 쓰기 시작하였으나, 1684년 그리말디 추기경과 1688년 루바 주교의 포고령 의해 성직자들의 가발착용은 전면 금지되었다. 영국의 찰스 2세도 성직자들의 가발 착용을 금지하였으며, 대부분의 성직자들은 가발의 착용은 신의 섭리를 위반하는 죄의 결과물로 비난하였다³⁵⁾. 그러나 이러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의 가발착용은 계속 유행하였으며 유럽 상류계급의 패션에 가발은 절대 필요불가결한 것이 되어 그 이후 130년 동안이나 그 유행이 지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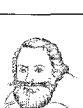

IV. 수염스타일의 변화

1. 전기

17세기는 긴 머리와 가발의 유행으로 인하여 수염스타일도 독창적으로 발전하였는데, 수염은 인간의 동물성을 나타낸다고 말하던 성직자들도 16세기 이후 수염을 기르면서 수염은 신이 부여한 남성미의 상징으로 모든 남성들이 공들여 손질하고 정돈하였다. 수염은 손질방법에 따라 턱수염과 콧수염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여러 형태로 다듬어졌다.

16세기 후반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수염에 세금을 부과하였으며 수염은 부의 상징으로서 귀족 계급층만이 수염을 기를 수 있는 특권이 있었다³⁶⁾. 17세기가 되면서 유행을 따르는 젊은이들은 턱수염을 짧게 다듬기 시작하였고, 나이든 사람들은 여전히 긴 턱수염을 가지고 있었다. 짧은 턱수염은 많은 노력과 시간을 소비해야 하는 중요한 것이었으며 얇게 다듬어 구레나루를 길러 더 위엄있게 하거나 길게, 술이 많게 끝머리를 뽀족하게 하는 등 여러 스타일이 존재하였다. 짧은 턱수염은 작은 턱수염용 솔과 빗으로 정리해 향이 나는 왁스로 모양을 고정시키면서 공을 들여 관리하였다. 필요한 경우에는 염색도 하였는데 특히 턱수염에 회색빛 털이 생기는 것은 생식기 능력의 쇠퇴와 노화에 따라 생식불능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는 명백한 신호였다. 따라서 자신의 쇠약함과 노화를 감추기 위해 턱수염과 머리를 염색함으로써

<표4> 턱수염의 종류

종류	형태	그림
로만 T(Roman T)	로마문자 T 모양의 턱수염으로 입술아래 일자형의 턱수염만을 남기고 턱 전체를 면도한 형태	 
스틸레토(Stiletto) 반다이크 비어드	아래쪽으로 예리하게 각이 진 형태의 턱수염	 
니들비어드(Needle-Beard)	가늘고 예리하게 뾰족한 끝을 가진 턱수염	
삐끄 드방(Pique devant)	턱 옆에서부터 앞으로 삼각형이 되도록 정리한 턱수염	 
나사형 비어드(Screw- Beacd)	뺨과 턱을 면도하고 입술아내 일자형의 턱수염을 나사처럼 구불거리게 꼬아놓은 턱수염	
스퀘어 컷 비어드(Square cut Beard)	턱 옆쪽은 짧게 정리하고 앞은 아랫입술 아래로 사각형이 되도록 면도한 턱수염	 
고트 비어드(Goat Beard)	턱 옆은 깨끗이 깎고 아랫입술 아래쪽 앞턱부분만 염소처럼 늘어뜨려 정리한 턱수염	 
스페이드 비어드(Spade Beard)	턱 옆은 깨끗이 면도하고 윗입술 위쪽부터 입술 옆, 아랫입술 아래까지 정돈한 삽모양 형태의 턱수염	 
마우스 이튼 비어드(Mouse-eatenBeard)	앞쪽 턱 아래부분만 들쭉 날쭉하게 쥐어뜯다 만 형태로 정리한 턱수염	 
라운드 비어드(Round Beard)	귀 옆쪽의 구렛나루에서 턱옆부분을 이리 앞쪽까지 둥글게 손질한 턱수염	 
스왈로우 테일 비어드(Swallow-tail)	턱 옆쪽은 깨끗이 면도하고 입술 위 콧수염을 아래쪽 턱수염과 같이 밑으로 내려 빗어 제비꼬리처럼 아래부분이 펼쳐진 형태의 턱수염	
기타 변형된 턱수염	위의 턱수염 형태를 응용하여 변형시킨 여러형태의 턱수염	



<그림10> 폴버텀 위그를 쓴 루이 14세, 천년의 그림여행, p.187



<그림11> 폴버텀 위그를 쓴 백작 Costume and Fashion, p.226.

서 유행에 맞게 다듬어 세련되게 유지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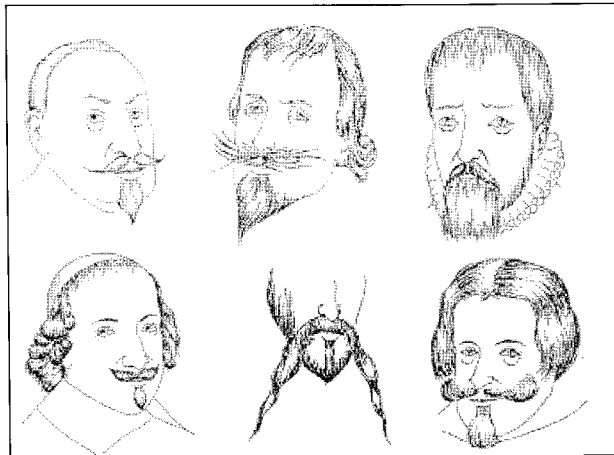
수염에 대한 유행은 변화가 다양하였고 창조적이었다<표4>. 어떤 스타일이던 간에 턱수염 손질은 특히 전문적인 이발사나 외과의사에게 맡겨져야 하는 중요한 것으로서 17세기에는 턱수염과 머리를 다듬는 견습이발사 교육이 성행하였다<37>.

콧수염은 턱수염의 손질방법에 따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형태로 다듬어졌다. 대부분은 코 아래에서 양쪽으로 나누어 끝에 킨을 주고 살짝 빗어 올린 스타일과 끝이 아래로 처지도록 빗어서 정리한 스타일이 유행이었으며, 역방향으로 빗어 올린 중간 부분만 남기고 면도한 스타일, 턱수염과 같이 연결하여 밑으로 빗

어 내리거나, 콧수염 끝역방향콧수염도 애용되었다. 그 외에도 고양이 콧수염처럼 옆으로 뻗치게 한 스타일, 인을 빗어 올린 스타일 등이 있었으며 스페인에서는 매우 길거나 기묘하게 모양을 낸 콧수염이 유행하였다<그림12>.

2. 중기

머리길이가 점점 길어지고 가발이 유행함에 따라 짧고 잘 다듬어진 수염이 나타났으며 왕의 취향에 따라 유행이 변화하던 시기에도 턱수염은 남성들의 강한 애착으로 인해 금세 사라지지 않았다. 반면 콧수염은 예전보다 더욱 섬세하게 다듬었는데 턱수염 애호가들이 아니었던 루이 13세는 작은 콧수염과 함께 턱에 뾰족하게 정리한



<그림12> 여러 가지 형태의 콧수염 Fashion in Hair, pp. 237-245.

술이 없는 조그만 턱수염만은 남겨두었고, 이것은 새로운 스타일로 유행하게 되었다<그림13>.

17세기 중기에는 가발을 착용한 프랑스 궁정을 제외하고는 자연스럽게 곱슬거리는 긴머리가 유행하였고 여전히 남아 있던 턱수염은 정성스럽게 왁스를 발라 손질하였다.

정치, 종교적인 영향으로 유럽지역의 일부 귀족층과 종교인들에게 가발과 과장된형태의 머리는 신의 뜻을 거스르는 부도덕하고 불명예스러운 것으로 치부되었으며 자연스러운 본래의 머리와 멋있게 기른 턱수염과 콧수염은 남성의 상징이며 남성을 여성으로부터 구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만들어 준 것으로 정성스럽게 다듬고 손질하였다<그림14>.

길어진 머리와 부피가 커지기 시작한 가발로 인해 유럽사회에서 턱수염은 점점 사라지게 되었으나 콧수염은 여전히 애용되어 남성들은 콧수염을 길고 가늘게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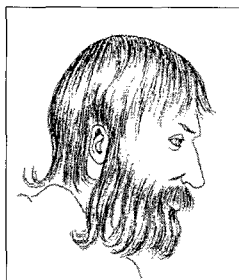
콧수염도 턱수염과 마찬가지로 남성들이 아침마다 공을 들여 다듬어야 했으며 턱수염과 같은 색으로 염색을 하고 풀을 먹여 세련된 모양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였다.

3. 후기

17세기 후반 거대해진 페리위그는 수염의 종말을 가져왔다. 바로크 시대의 향락적이고 퇴폐적인 부조화, 불균형을 추구하는 경향은 기존의 남성들이 추구했던 독립적이고 강하고 절제된 남성미에서 화려하고 연약한 여성미를 강조하면서 가발의 부피는 점점 확대되고 반대로 수염



<그림13> 점점 축소되는 턱수염, *Fashion in Hair*, p.243.



<그림14> 종교인의 턱수염 *Fashion in Hair*, p. 245.



<그림 15> 턱수염이 사라진 남성의 삽화와 그림 *Fashion in Hair*, p.247

은 점점 축소되었다. 그러나 종교적인 신념을 가진 성직자들과 나이가 많은 장년층에서는 페리위그나 풀버덤위그를 착용하고도 작은 턱수염과 가느다란 콧수염을 길게 달고 있는 사람들도 일부 있었다<그림15>. 일반적으로 가발의 크기가 점점 거대해지면서 얼굴에 남아있던 턱수염은 완전히 사라졌지만, 콧수염은 여전히 애용되어 남성들은 콧수염을 길고 가늘게 정리하였다. 그러나 1680년 루이 14세가 콧수염을 면도하면서 수염은 남성의 얼굴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되었고, 19세기가 될 때까지 약 130년 동안 남성들의 얼굴은 모든 부분을 면도하여 완전히 드러내는 유행이 지속되었다<38>.

V. 결론

본 연구를 통하여 남성 헤어스타일에 있어서 17세기 남성의 머리와 수염의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7세기 전기 헤어스타일은 종교적 신념하에 엄격하고 절제된 스페인 복식의 영향과 잔재되어 있는 르네상스 시대 복식인 리프칼라와 휘스크 칼라의 영향으로 당시의 신사들은 머리를 짧게 다듬어야 했고 짧은 머리와는 반대로 풍성한 턱수염과 콧수염은 신이 부여한 강한 남성미의 상징으로 모든 남성들이 공들여 손질하고 정돈하는 것이 유행하였다.

17세기 중기 헤어스타일은 시민정신과 실용주의에 중점을 둔 네델란드 복식의 변화에 따라 어깨까지 내려 앉은 형태의 칼라가 유행하게 되었고 어깨까지 내려오는 긴 길이의 머리형태가 전 계층에서 유행하게 되었다. 머리길이가 길어

짐에 따라 턱수염과 콧수염이 새롭고 다양한 스타일로 유행하게 되었다.

17세기 후기에 들어서면서 프랑스 궁정을 중심으로 화려하고 장식적인 바로크스타일 양식의 복식이 전 유럽에 유행하면서 길이가 긴 윤기있고 풍성한 헤어스타일이 유행하였다. 가발은 처음에는 자신의 머리를 더욱 풍성하게 보이게 위한 보조 장식으로 가능한 한 작고 자연스럽게 만들었으나, 1680년경 가발을 썼다고 판별되는 인위적인 형태가 사랑받게 되면서 그 부피와 화려함은 역사상 가장 크고 가장 과장된 스타일의 가발인 페리위그와 풀버텀 위그의 유행을 가져왔다. 바로크 시대의 화려한 복식과 풍성한 머리, 거대한 가발은 17세기 남성들의 여성적 미의식이 표면적으로 표출된 대표적인 형태라 할 수 있다. 길이가 긴 헤어스타일과 가발이 유행함에 따라 반대로 얼굴에 남아 있던 수많은 형태의 턱수염과 콧수염은 점점 작아져 17세기말에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17세기는 남성의 헤어스타일과 수염스타일이 극적으로 변화되면서 화려함의 정점을 이룬 시기로서, 특히 남성미의 개념이 17세기 관능성과 소비성의 대상으로 재창조되었으며 특유의 강인한 남성미에 대한 부정적인 경향이 심화되고 변질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헤어스타일은 후에 과도한 장식성으로 치우쳐 극단적인 기괴성을 내포하기 까지 이르며 이는 남성의 얼굴에 수염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17세기는 역사상 남성의 헤어스타일이 가장 화려하고 여성스럽게 재창조된 시기로서 앞으로 현대 남성 헤어스타일과 수염스타일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는 더욱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1) 황윤정, 조기여, 정윤희 (2003). Rococo시대에 나타난 헤어스타일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5(1).
- 2) 장상숙, 김훈 (2001). 프랑스 절대왕정 시대의 헤어스타일에 나타난 역사적 의미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 3) Blanche Payne (1965). *History of Costume*. Harper&Row Pub, p.116.
- 4) 광형심, 권대순, 권태신, 김효정, 이수경, 장경옥, 허득순 (2004). *미용문화사*. 서울: 청구문화사, p.175.
- 5) 김춘득 (2002). *동서양 미용문화사*. 서울: 현문사, p.84.
- 6) Ibid. p.84.
- 7) Eduard Fuchs. 이기웅, 박종만 역 (1995). *풍속의 역사 II*. 서울: 까치, p.2.
- 8) 김수경 (1998). 서양복식에 표현된 남성 이미지 해석에 관한 고찰. *카톨릭대학교 생활과학 연구논집*, p.39.
- 9) Ibid. p.44.
- 10) Anne Hollander. 채금석 역 (1996). *의복과 성*. 서울: 경춘사, pp.62~69.
- 11) 광형심, 권대순, 권태신, 김효정, 이수경, 장경옥, 허득순 (2004). *Op. cit.*, p.177.
- 12) Eduard Fuchs. 이기웅, 박종만 역 (1995). *풍속의 역사 III*. 서울: 까치, pp.3~15.
- 13) 신상옥(2006). *서양복식사*. 서울: 수학사, p.173.
- 14) 김수경(1998). *Op. cit.* p.45.
- 15) James Laver(1996). *Costume&Fashion*. London: Thames&Hudson, p.122.
- 16) Ibid, p.314.
- 17) 정현진, 조진아, 장경옥, 김성남, 유우정, 박종순 (2004). *미용문화사*. 서울: 광문각, p.77.
- 18) Lynn Schnurnberger (1991). *40,000Years of Fashion Let There be Clothre*. N.Y: IWorkman, p.200.
- 19) Douglas A. Russell (1983). *Costume History and Style*. New Jersey: Prentice Hall, p.243.
- 20) Richard Corson (1995). *Fashion in Hair*. London: Peter Owen, p.206.
- 21) 류은주 (2003). *모발미학사*. 대전: 이화출판사, p.158.
- 22) Ibid., p.209.
- 23) Lynn Schnurnberger(1991). *Op.cit.*, p.200.
- 24) Charles H. Ashdown(2001). *British Costume- From EarliestTime To 1820-*. N.Y.: Dover, p.281.

- 25) Ibid., p.160.
- 26) 정현진, 조진아, 장경옥, 김성남, 유우정, 박종순(2004). Op.cit., p.79.
- 27) Lynn Schnurnberger(1991). Op.cit., p.202.
- 28) Browyn Cosgrave(2000). *The Complete History of Costume & Fashion-from ancient Egypt to the Present Day*. N.Y.: Checkmark books, p.194.
- 29) James Laver(1996). Op.cit., p.133.
- 30) Phyllis Tortora, Keith Eubank(1997). *Survey of Historic Costume*. N.Y.: Fairchild,p.235.
- 31) Douglas A. Russell(1983). Op.cit., p.266.
- 32) 광형심, 권대순, 권태신, 김효정, 이수경, 장경옥, 허득순(2004). Op.cit., p.180.
- 33) Lynn Schnurnberger(1991). Op.cit., p.200.
- 34) Browyn Cosgrave(2000). Op.cit., p.195.
- 35) Richard Corson(1995). Op.cit., p.216.
- 36) 정현진, 조진아, 장경옥, 김성남, 유우정, 박종순(2004). Op.cit., p.61.
- 37) Richard Corson(1995). Op.cit., p.203.
- 38) John Nunn(2000). *Fashion in Costume 1200~2000*. Chicago: New Amsterdam Books, p.62.